

구축공간의 공간적 형태에 나타난 부가와 공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Form Created by Addition and Subtraction in Architectural Space

최성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Choi, Sung-ho

Faculty of Design, Grad. School, Seoul National Univ.

● Keywords: spatial form, addition, subtraction

1. 서론

구축환경은 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상징하며,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구축공간의 창조는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위에 공간을 한정짓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간조형론(空間造形論)적 접근에서는 '구축이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형태로서 존재하며, 형태가 갖는 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작용한다.'라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구축형태는 그것이 구축 전체에서 어떠한 비중을 갖는지 공간디자이너의 사고가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공간조형이 하나의 자립적인 체계로, 내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축을 형태론적으로 바라보는 바트(Kurt Badt)와 같은 학자는 '공간적 작용은 언제나 물리적 표현에 의해 간접적으로 형성된다.'고 하여, 내용으로서의 공간만이 아닌 결과 또는 형식으로서의 형태를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다. 또 브링크만(Albert Erich Brinckmann)은 「카톨릭 국가의 17세기 및 18세기의 건축예술(1915)」에서 구축을 공간과 매스의 통일체로 정의하였다. 그는 '구축은 공간과 물체적인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다. 조형적 매스에 대비되는 공간은 조형적 매스가 접촉하는 곳에서 한계가 정해지고, 그 공간은 내부에서 감지되는 것이다. 또한 조형적 매스는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의해 한계가 정해지며, 그것은 외부에서 감지된다.'고 하여 구축을 공간과 매스의 상호관계로 해석하고 있다. 이 양자는 방법론상 형태를 우위에 둘 것인가 아니면 상호대립하는 이원론으로 볼 것인가의 관점 차이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형태 또는 매스가 공간을 구성하는 본질임을 강조한 점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능적 공간을 한정하는 구축형태는 어떠한 형태로 창조되고 제공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인 다양한 조형원리 중, 기본적 형태에서 가감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따라서 구축형태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간조형원리로서의 공제적 형태와 부가적 형태의 개념과 특성을 서술함과 동시에 사례를 분석하여 그 구축형태가 갖는 의미를 연구하는데 의의를 둔다.

2. 형태의 개념과 구축형태의 특징

우리말의 형태에 해당하는 영어의 'form'이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대상의 영역이나 윤곽을 뜻하는 형상(形象)을 뜻한다. 또 부분들의 배열 즉, 요소나 구성성분 등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 또는 병합한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형식(形式)을 뜻하기도 한다. 보다 특수한 경우, 어떤 대상의 개념적 본질 - 물적 본성(物的 本性) - 이라는 뜻으로 혹은 심적 본성(心的 本性)의 차원에서 선천적 형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내용에 상반된 것으로서 형식을 의미할 때 기표(記標)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간 그 자체는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하지만 공간은 체험

가능하다. 공간은 구체적 형태에 의해 체험되는 감각적 차원과 공간 그 자체를 신체로 접촉할 수 없는 초감각적인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것은 구축의 매스와 형태이지만 이 때 지각되는 것은 보편적이며 균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감각적이며 현실적인 공간으로서 형태와 동시에 지각되는 것이다. 구축공간은 형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의존하고 있으며, 이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소재와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구축공간과 구축형태의 관계는 개별적인 것이 아닌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축형태는 형식이 갖게되는 특질, 즉 다른 것과 구별되는 식별성과 부분을 통합하여 전체를 이루는 유사성의 각기 다른 양면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형태는 환경과 구분할 수 있는 물리적 속성의 식별성을 가지고자 하며, 동시에 제반환경과 조화를 이루려는 유사성의 양면을 지닌다. 식별성의 측면에서 구축형태는 하나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함으로써 이미지를 명확하게 하고, 방향감을 높일 뿐 아니라 단조로움으로부터 분리시켜 준다. 유사성의 측면에서는 특정한 지역의 기후나 생활문화, 민족성 등을 반영하여 보편화된 동일성을 지향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미지의 표현으로 이용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구축형태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실존적 기반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대지를 장소로 시각화시키기도 하며, 기능과 규모의 배분이라는 합목적성의 수행 측면에서 성립되는 성질을 갖고있다.

3. 부가적 형태와 공제적 형태

3.1. 구축공간 형태의 부가(addition)와 분할(division)

독일의 미술사가인 프랑클(Paul Frankl)은 구축공간 형태의 비판적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공간적 구성, 매스와 표면의 취급, 빛과 색채의 시각적 효과와 취급, 사회적 기능에 대한 디자인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공간적 형태, 물질적 형태, 시각적 형태, 목적의도 등의 체계를 세운바 있다. 그는 이러한 비판적 체계를 통해 르네상스로부터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등 네 시기를 비교하여, 하나의 지배적 원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부가(addition)'에 의한 구축은 완결된 단위가 연결되어 전체를 형성시키지만, '분할(division)'에 의한 구축은 하나의 전체적인 형태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그것이 몇 개의 요소와 단편에 의해 분할되어 있다고 한다. 그가 제시한 많은 유형학적 비교연구에 따르면 르네상스의 구축물은 독립적 요소인 공간 일실(一室), 한정된 표면, 명확한 매스 등이 부가되어 구축된 것으로 이해되며, 바로크는 먼저 주어진 것과 후에 분할(分割)된 것이 총합을 이루는 구축물로 이해된다. 또 프랑클은 열(row)과 군(group)의 개념을 설정하고, 열과 군이 개방 또는 폐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부가와 분할의 조작으로 생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그는 융합시키는 요소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호관입(interpenetration)과 연합(fusion)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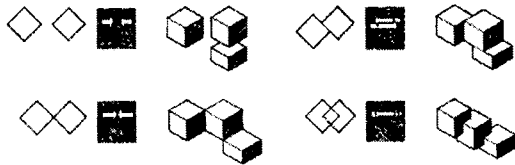
이러한 구축형태의 분석을 위한 공간조형론적 탐구는 현대까지 이어져 칭(Francis D. K. Ching)의 저서인 「건축의 형태·공간·규범」과 같은 요소의 양상에 따른 형태전개의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그는 이 저서에서 프랑클이 제시한 부가와 분할의 형태변형을 부가적 형태와 공제적 형태라는 개념으로 보다 명확히 서술하고, 그에 따른 도해를 보여주었다.

3.2. 부가와 공제요소의 형태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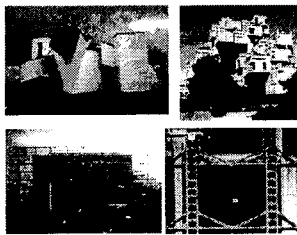
아시하라(Yosinobu Ashihara)는 구축공간의 창조적 2가지 방법을 구심성과 원심성에 기초하여 설명하면서, 전자는 외적조건에 대하여 외형이 결정되면 그 매스의 내부에 암시되어 있는 공간을 살려내는 것이라 하였다. 즉 조각처럼 다듬고 쪼개어내는 공제에 의한 형태를 말하고, 후자는 먼저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이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로 부가적 형태라 하였다.

3.2.1. 부가적 형태(additive form)

쇠르젤은 '구축은 공제해 가면서, 기존 매스를 줄여 나가는 조각과는 다르다. 구축은 부가하는 것이며, 기존 공간 주변의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형태의 부가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칸(Louis Kahn) 역시 접합부는 '장식의 시작'이라고 역설하면서 부가적 기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부가적 형태는 다른 요소적 형태와의 조합에 의해 특정화되며, 시각적 통일을 위해 적절한 조화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칭은 두 개의 형태를 부가적으로 통합시키는 근본적 방법으로 두 개의 형태 또는 요소의 근접, 모서리와 모서리의 접촉, 2개 이상 면의 접촉, 형태의 상호관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칭은 부가적 형태들을 요소들간의 통합성과 배열축에 따른 관계특성에 따라 구심형, 선형, 방사형, 집합형, 격자형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유형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크게 '선적(線的) 부가형태'와 '면적(面的) 부가형태'로 분화하고 이를 더 세분화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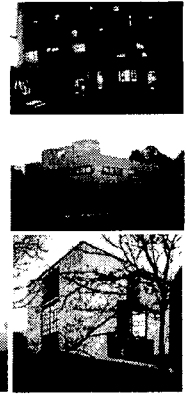


선적 부가	수직형		면적 부가	구심형	
	수평형			선형	
	격자형			방사형	
	사선형			집합형	
				대립형	
				격자형	
				관입형	

표 2. 부가적 형태의 유형

3.2.2. 공제적 형태(subtractive form)

공제는 원래의 형태에서 일정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수반하는 조형적 개념이다. 공제적 형태에서 삭제된 부분은 강한 시각적 효과와 더불어 깊이지각에 따른 강한 입체적 효과를 준다. 공제적 형태의 디자인을 수행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특정부분의 공제는 형태적 동일성을 유지시켜 주지만, 모서리의 공제와 같은 경우 본래의 형태가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형태의 공제방법을 크게 분절적 공제, 구조적 공제, 면적(面的) 공제로 유형화하고, 면적 공제를 다시 모서리형, 개구부형, 관통형의 3가지로 유형화하여 <표2.>와같이 제시하였다.



분절적 공제		
구조적 공제		
면적 공제	모서리, 면형	
	개구부형	
	관통형	

표 2. 공제적 형태의 유형

4. 결론

공간조형원리로서의 부가적 공간형태와 공제적 공간형태의 두 가지 대립적 요소는 프랑클이 제시한 공간적 형태의 상반된 극성인 부가와 분할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보다 구체적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칭의 대분류에 근거하여 부가 및 공제에 대한 기본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조형원리로서의 부가와 공제의 대립요소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공간디자이너가 상호관계를 갖는 디자인언어를 적절히 조작할 때만 훌륭한 구축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구축형태의 부가와 공제 개념은 뚜렷하게 대립하여 구축의 실체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며, 공간디자이너가 사용하는 방법적 형태체제로서 상호 연관성을 가진 디자인요소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구축물과 구축물의 유형에 따른 형태특성은 보다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하며, 단편적 고찰의 차원을 넘어 동·서양 구축형태의 부가와 공제 특성 등으로 폭넓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간디자인 교육에 있어 보다 실제적인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조형원리 개발과 교육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형우, 건축의 공간적 형태에 나타난 부가와 분할에 관한 연구, 홍대논총 제22집, 1990
- 김효일, 건축의장론, 경남대출판부, 1997
- 신태양, 건축공간론과 형태론의 계보, 호남대논집 제 18집, 1997
- Christian Norberg-Schultz, 진경론, 이정국 역,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기문당, 1989
- Francis D.K. Ching, 황연숙 역, 건축의 형태·공간·규범, 국제, 1997
- Heinrich Klotz, 양돈석 역, 현대건축론, 기문당, 1984
- Pierre von Meiss, 정인하, 여종진 역, 형태로부터 장소로, 시공사, 2000
- Rudolf Arnheim, 손승광 역, 건축의 역학적 형태, 기문당, 1987
- 하상민, 건축의 형태생성 동인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1995
- Yoshinobu Ashihara, 김창동 역, 건축의 외부공간, 기문당, 1981